

## 통제되지 않는 항수병: 삶의 순간, 흔적, 기록

서희주 (철학박사, 미술비평 / 비영리전시공간 싹 디렉터)

1986년 4월 26일 이후,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지역이 되었다. 원자로 4호기에서 발전기 실험 도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하여 방사능 관련 질병 사망자까지 합쳐 10만 명이 숨졌다. 원자로 주변 30km 이내에 사는 주민 9만 2000명은 모두 강제 이주되었다.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체르노빌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벨라루스는 낙진 피해를 당한 지역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470개 마을을 소개(疏開)했다. 그날의 악몽은 지금까지도 망령처럼 떠돌고 있다. 강제로 이주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고향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피폭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체르노빌의 망령에 사로잡혀있을 것이다. 이 끔찍한 상황은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졌다. 보고 형식의 서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다큐멘터리, 사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체르노빌의 사고의 원인과 영향,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 그리고 인류의 방향을 언급했다. 이처럼, 이 사고는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작가 정성태는 이런 끔찍한 곳을 열두 번이나 방문했다. 그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모습을 작품에 담았다. 그가 체르노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고향을 떠나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이다. 이 관심은 그를 체르노빌로 이끌었다. 2011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의 관광을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이제,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들 한 번쯤 가고 싶어 하는 관광지가 되었다. 정성태는 처음에 관광객들 틈에서 체르노빌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가는 체르노빌의 상황을 잘 알 수 없어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제한된 관광구역과 관광객들의 야단스러운 속에서 체르노빌의 진정한 모습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첫 번째 방문 후, 곧 다시 짐을 꾸려 체르노빌로 향했다. 까다로운 출입 허가 과정을 거쳐, 방사능이 잔류해 있는 죽음의 도시, 프리피야트(Pripyat)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정성태는 두 번째 방문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부서진 문이 마치 지옥을 향하는 입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했을 때의 느낌은 전혀 달랐다. 창밖에 눈이 소복이 쌓인 모습과 묘하게 어우러진 탓일까. 그 낡은 문이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처럼 보였다.” 그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처럼 보였던 그곳은 폐허의 미학적 감성 안에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숨겨져 있는 곳이었다. 방사능 측정기를 휴대하고 프리피야트 주민들이

나누어주는 음식과 술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통제되지 않은 향수병과 그들이 선택한 삶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는 체르노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게 되었다.

정성태의 작품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담론에 주목할 수 있다. 폐허가 된 흔적을 통해서 비극적인 상황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서둘러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흔적은 그들의 급박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방안은 이리저리 훑뜨려 있고 금방이라도 방주인이 돌아올 것 같다. 탁자 위의 두터운 먼지만이 시간의 흐름을 가늠케 한다. 벽들은 낡고 부식되었고 벽들의 틈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나 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자연이 스며들어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소음이 될 것 같은 고요함은 관객으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한다. 이 폐허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 풍경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

그런데 이 폐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곳에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사모셀르(Samosely)라고 불리는 이들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집에서 살고 그 땅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산다. 방사능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조금씩 쇠약해지더라도 그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타향에서 그들은 방사능 덩어리라는 차가운 시선에 시달렸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마음이 병들었다. 삶의 마지막을 자신의 고향이자 가족과의 추억이 있던 곳에서 마치고 싶다는 열망과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향수 때문에 몇십 킬로미터를 걷고 출입금지 철조망을 넘어 다시 돌아왔다.

사진 속 인물들은 그저 고향에서 늙어가는 노인들의 평온과 일상을 보여준다. 체르노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사진들은 그저 삶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외부로부터 단절된 삶이지만 그들은 고향에서 평안한 안식을 찾았다. 그들의 내면 깊숙이 파고든 정성태의 카메라 렌즈는 담담하게 그들의 모습을 담아낸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한다. 한편으로 시간이 흘러 어느 시기가 되면 이 사진들은 이주와 정주, 거부할 수 없는 향수(鄉愁)가 가져온 삶들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다. 정성태의 작품은 반핵이나 탈 원전에 대한 이야기 만은 아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다. 다만, 그 삶이 특별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삶이라는 것이 다르다. 체르노빌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 삶이 흔들렸고 자신의 의지로 삶을 회복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통제되지 않는 향수병, 그것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선다. 그들의 향수병은 삶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그리고 삶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곳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열망인 것이다. 정성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